CONDERI

MARKET & INDUSTRY INSIGHT | 대외 공개판

성장률 3.9%인 나라에서 청년 취업자는 48개월째 줄었다

A 3.9 Percent Economy With a Four-Year Youth Hiring Slump — Three Temperatures in One Country

이 리포트가 다루는 것

10월 소비자물가는 2.8%로 한국은행 목표(2%)를 0.8%포인트 웃돌았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 늘어 한은 전망치(0.3%)를 0.7%포인트 넘었습니다. 같은 달 청년(15~29세)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째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는 3.00%에서 11월 26일 3.25%로 오를 것이 유력하고, 시장은 내년 2월 3.50%를 봅니다. 성장·물가·금리는 함께 오르는데 청년의 자리만 줄어드는 이 세 개의 온도가 이번 주의 한국 경제입니다. 그 온도차가 자금(벤처투자 12조6,000억 원)과 제도(데이터센터·교육 AI)를 어디로 밀어내는지까지 하나의 구조로 읽습니다.

2.8%
10월 소비자물가
목표 2.0% 대비 +0.8%p

1.0%
3분기 GDP 전기 대비
한은 전망 0.3%의 세 배

−19.6만
10월 청년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12.6조
1~3분기 벤처투자
사상 최대

I~II 금리·성장
3.25%로 가는
마지막 회의

III~IV 고용
48개월과
비정규직 46%

V~VI 자금·시장
의료·소재로 간
666억 원

VII~VIII 제도
50MW 면제와
교실의 AI

Executive Summary / 요약

Growth up, rates up, youth hiring down — one country, three temperatures

3.25%	3.9%	2.8%	1,336.2원
11월 26일 금통위 전망	2026년 성장률 전망(IMF)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달러 종가(11-20)

오늘의 결론 — 좋은 성장이 만든 세 개의 청구서

성장은 올라갑니다.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1.0% 늘어 한은 8월 전망(0.3%)을 0.7%포인트 넘었고, IMF는 올해 3.9%, KDI는 내년 3.9%를 봅니다. 물가도 목표 위에 있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도 2.8%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7·8월에 각각 0.25%포인트 올려 3.00%가 된 기준금리는 26일 3.25%로 오를 것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네 번째 방향입니다. 같은 달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째 내려갔습니다. 성장과 물가와 금리가 함께 오르는 나라에서 청년의 자리만 줄어드는 이유는 성장을 만드는 산업과 사람을 채용하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금리 — 올해 마지막 회의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시장은 3.00%→3.25% 인상에 무게를 둡니다(하나증권 "만장일치"). 키움증권은 내년 2월 3.50%를 봅니다. 같은 날 수정 경제전망과 점도표가 나옵니다.

② 성장 — 1.0%가 바꾼 전망

3분기 GDP 1.0%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끌었습니다. 한은 8월 전망 3.3%는 3%대 후반으로, 내년 2.9%는 3%대 초반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③ 고용 — 반대쪽 끝

10월 취업자 +13만9,000명은 60세 이상(+19만6,000명)이 대부분입니다. 20대는 20만3,000명 줄었고, 청년 비정규직은 46.0%로 역대 최고입니다.

자금 — 의료·소재로 좁아졌다

1~3분기 벤처투자 12조6,248억 원(사상 최대). 11월 셋째 주 8개사 666억 원 중 538억 원(80.7%)이 의료 로봇과 유리기판 소재로 갔습니다.

제도 — 50MW와 16과목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50MW 이하 전력평가 면제(2027-03 시행), 현직 교사 99명이 쓰는 AI 교과서 16과목(2028-03 적용)이 이번 주 확정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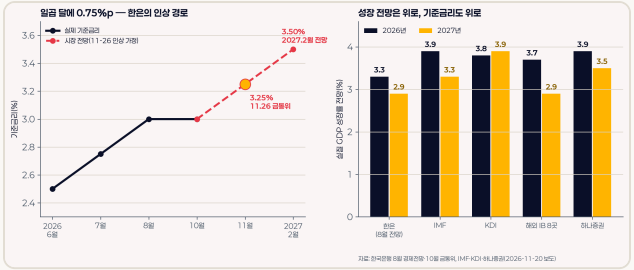
이 리포트의 판단

금리 인상은 성장이 좋아서, 청년 고용 부진은 성장의 구성이 바뀌어서 생겼습니다. 대응은 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급 업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 줄 성장은 3.9%, 금리는 3.25%, 청년 취업자는 48개월째 감소 — 같은 나라, 세 개의 온도

I. 금리 — 3.25%로 가는 마지막 회의

The last rate decision of the year, and who pays for it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2026-07·08·10월), 키움·하나증권 전망(2026-11-20 보도)

올해 마지막 회의 — 3.00%에서 3.25%로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는 연 3.00%입니다.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 올린 뒤 10월에 동결했고, 이번에는 다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나증권은 "3.25% 만장일치 인상"을, 키움증권은 이달 인상 후 내년 2월 3.50%를 전망합니다. 반대 논리는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입니다. 앞선 두 차례 인상의 효과가 아직 소비와 투자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변수	현재 값	한은의 판단 근거	시장의 해석
기준금리	연 3.00%	7·8월 인상, 10월 동결로 속도 조절	11-26 3.25%, 2027-02 3.50% 전망
소비자물가	2.8%(10월)	목표 2.0%를 0.8%p 초과, 근원도 2.8%	수요 측 압력이 남아 있다
GDP	3분기 +1.0%(전기 대비)	한은 8월 전망 0.3%를 0.7%p 초과	연간 3.9% 전망(IMF)
금리 전망(점도표)	6개월 뒤 3.50% 예상	8월 점도표 상향의 명분 축적	3.50~3.75% 제시 비중 확대
환율	1,336.2원(11-20)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로 전이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 강세 요인
청년 고용	−19만6,000명(10월)	금리로 풀 수 없는 구조 변수	인상해도 채용은 돌아오지 않는다

금리 물가 2.8%, 성장 1.0% — 한은이 움직일 이유는 충분하다. 문제는 그 금리가 청년의 자리와 무관하다는 것

II. 성장 — 1.0%가 바꾼 전망, 바꾸지 못한 채용

One quarter that rewrote the forecasts, but not the hiring

1.0%
3분기 GDP 전기 대비

0.3%
한은 8월 전망치

3.9%
2026년 성장률(IMF)

3.9%
2027년 성장률(KDI)

한 분기에 전망을 세 배 넘긴 성장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3%의 세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가 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의 모양입니다. 생산은 정보기술(IT) 제조업이 끌지만, 상용직 일자리는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성장률과 채용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구조적 간격이 여기서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이 간격을 "1차 노동시장 수요의 정체"라고 부릅니다.

기관	2026년	2027년	직전 전망 대비	비고
한국은행(8월)	3.3%	2.9%	기준선	11-26 수정 전망에서 상향 예상
하나증권	3.9%	3.5%	+0.6%p / +0.6%p	11-26 3.25% 인상 전망
IMF	3.9%	3.3%	상향	세계 성장률 전망 동반 상향
KDI	3.8%	3.9%	상향	반도체 호조 시 내년 4% 가능
해외 IB 8곳	3.7%	2.9%	상향	바클레이스·골드만삭스·노무라 등

성장의 재료 — 반도체와 설비투자

11월 1~10일 수출은 334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1.9% 늘었고, 그 절반(49.7%)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도 36.4% 늘어 설비투자의 선행 지표가 함께 올랐습니다. 성장률 상향의 근거는 이 두 줄입니다.

성장의 그늘 — 소비와 고용

민간 소비는 뚜렷한 회복 신호가 약하고, 취업자 증가는 월 10만 명대 초반에 머뭅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를 12만 명으로 봅니다. 성장률이 지난해(1.1%)의 세 배를 넘는데 취업자 증가는 오히려 줄어드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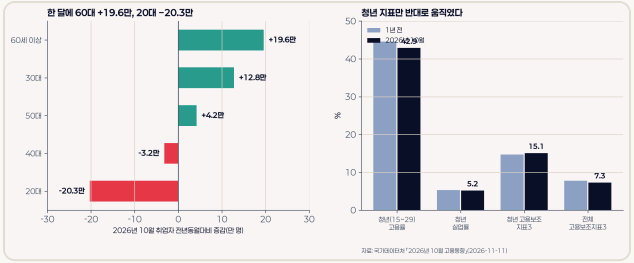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살아 있고 경기가 견조하면, 금리를 올려도 경기 둔화를 감수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한은이 인상으로 기울 수 있는 이유는 성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입니다.

관찰 성장률 3.9%는 반도체가 만든 숫자다 — 채용은 다른 산업에서 나온다

III. 고용 — 48개월, 사상 최장의 청년 감소

Forty-eight months: the longest youth hiring decline on record



지료: 국가데이터처「2026년 10월 고용동향」(2026-11-11)

48개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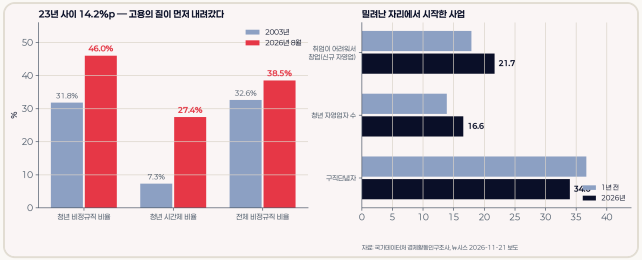
10월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내리며 30개월째 하락했습니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9만6,000명, 30대 +12만8,000명, 20대 −20만3,000명입니다.

지표	2026년 10월	1년 전	변화	해석
취업자(전체)	2,917만9,000명	2,904만 명	+13만9,000명	5개월 연속 증가
청년 취업자	—	—	−19만6,000명	48개월 연속 감소
청년 고용률	42.9%	44.6%	−1.7%p	30개월 연속 하락
청년 실업률	5.2%	5.3%	−0.1%p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문제
청년 고용보조지표3	15.1%	14.7%	+0.4%p	전체(7.3%)와 반대 방향
청년 비정규직 비율	46.0%(8월)	—	통계 작성 이후 최고	2003년 31.8%

고용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은 30개월째 하락 — 같은 달에 두 숫자가 반대로 갔다

IV. 고용의 질 — 비정규직 46.0%, 23년 만의 최고

The decline is in quality more than quantity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2026-08), 뉴시스 2026-11-21 보도

줄어든 것은 숫자보다 질이다 — 비정규직 46.0%

8월 기준 청년 임금근로자 322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8만2,000명으로 46.0%를 차지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고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8.5%로 5.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청년은 31.8%에서 46.0%로 14.2%포인트 뛰었습니다. 시간제 비율은 7.3%에서 27.4%로 늘어, 청년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시간제로 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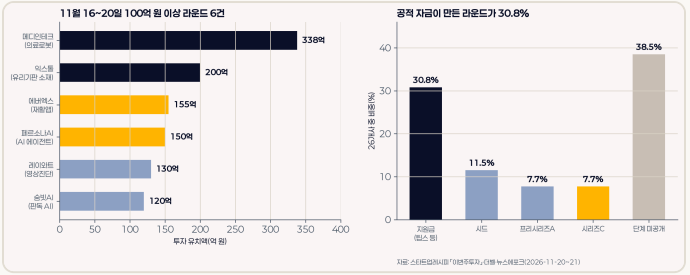
왜 질이 먼저 내려가나 — 1차 시장의 문이 좁아지면 2차 시장으로 내려간다

한국은행은 10월 26일 이슈노트에서 1차 노동시장(상용직) 수요가 정체되면 기업이 신규 채용 동결로 인력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부진기에는 청년이 1차 시장 진입을 기다려 실업률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눈높이를 낮춰 2차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1차 시장 내부의 잔류성은 높아지고 외부 진입 경로는 줄어, 2차 시장에 머문 청년이 돌아올 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분석 청년 고용 부진은 경기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실업률은 내려가는데 고용의 질이 내려간다

V. 자본 — 12.6조 원의 방향

Record venture funding, concentrated into fewer sectors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이번주투자」(2026-11-21), 더벨·뉴스에포크 주간 집계

금리가 오르는데 투자는 사상 최대 — 12조6,248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집계로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12조6,248억 원, 벤처펀드 결성은 12조9,971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이 먼저 마른다는 통념과 반대입니다. 정책자금과 모태펀드가 하단을 받치고, 민간 자금은 계산이 되는 섹터로 좁혀 들어갑니다. 11월 16~20일 26개사가 투자를 받았고, 금액을 공개한 8개사가 666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중 538억 원(80.7%)이 의료 로봇과 유리기판 소재 두 건입니다.

기업	분야	단계	금액	투자자
메디인테크	AI 로봇 내시경	시리즈C	338억 원	에이티넘·KB인베스트먼트 공동 주도
익스톨	유리기판 도금 소재	시리즈C	200억 원	SV인베스트먼트·아주IB·우리벤처
에버엑스	재활운동 앱	시리즈B 브릿지	155억 원	프리미어파트너스·LB·유진·IBK
페르소나에이아이	AI 에이전트	제3자 배정	150억 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레이와트	심뇌혈관 영상진단	시리즈B	130억 원	인터베스트·라이프·현대기술투자
숨빗에이아이	흉부 X-ray 판독 AI	시리즈A	약 120억 원	SV인베스트먼트 주도

자금 금리 3.25% 시대에도 자금은 있다 — 다만 의료·소재·AI처럼 계산이 되는 곳으로만 간다

VI. 시장 — 주간 −7.95%, 원화 1,336원

A market priced in dollars, in a country raising rates

4,869.96
코스피 종가(−5.21%)

−7.95%
코스피 주간 등락

645.68
코스닥 종가(−5.71%)

−4조5,583억
외국인 주간 순매도

주간 −7.95% — 지수가 아니라 금리가 주식을 눌렀다

11월 20일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으로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7.95%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5.71% 내린 645.68로 주간 7.72% 하락했습니다. 같은 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583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조6,57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국면의 특징은 하락의 이유가 국내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와 AI 밸류에이션이라는 점입니다. 미 10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웃돌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달러 인덱스는 19개월 최고(103.97)를 찍었고, 원·달러 환율은 6.2원 오른 1,336.2원에 마감했습니다.

지표	11-20	주간	배경
코스피	4,869.96(−5.21%)	−7.95%	반도체 급락,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도
코스닥	645.68(−5.71%)	−7.72%	중소형 성장주 동반 조정
원·달러	1,336.2원(+6.2원)	상승	달러 인덱스 103.73, 19개월 최고권
원·엔(재정)	100엔당 839.30원(+5.47원)	상승	엔화 약세 지속
국고채 금리	하락	—	주가 급락에 안전자산 수요

금리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경로

할인율이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성장주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외국인 환차손을 키워 매도를 부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와 AI 밸류에이션에 동시에 노출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물은 기록적이다

11월 초순 수출은 111.9% 늘었고, 3분기 성장은 전망을 세 배 넘겼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실물이 꺾인 것이 아니라 실물에 붙은 가격이 다시 계산된 것입니다. 두 국면을 가르는 지표는 12월 1일 월간 수출의 반도체 단가입니다.

시장 금리를 올리는 나라의 주식은 금리를 올리는 나라의 통화로 계산된다 — 환율 1,336원은 그 청구서다

VII. 제도 — 50MW와 16과목

Two numbers the state chose this week

제도 — AI 데이터센터 50MW, 그리고 교실의 AI

이번 주 정부가 움직인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50메가와트(MW)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하는 AI 데이터센터 가운데 계약전력 50MW 이하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습니다. 인허가도 사업자 신청 후 7일 내 관계기관 검토 요청, 10일 내 회신, 30일 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정으로 시한이 정해졌습니다. 하위법령은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업계는 절차 간소화는 반기면서도 50MW 기준이 요구보다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는 16과목입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 99명이 집필하는 초·중·고 AI 과목 16개 인정교과서를 2027년 시범 적용, 2028년 3월 정식 도입으로 예고했고, 11월 21일에는 MS·구글·AWS와 교사 AI·융합교육 역량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핵심 수치	시행 시점	시장에 주는 신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비수도권 50MW 이하 전력평가 면제	2027-03-10	수도권 밖 전력·부지가 새 입지가 된다
인허가 일괄처리	7일 요청·10일 회신·30일 상정	2027-03-10	착공까지의 리드타임이 예측 가능해진다
AI 교과서	16과목, 현직 교사 99명 집필	2027 시범 / 2028-03	교재 시장이 학교 단위로 열린다
교원 AI 연수	MS·구글·AWS 협력	2026-11-21 착수	연수 수요가 민간 에듀테크의 첫 매출
AI 교수학습 공통모듈	충북 다채움에 우선 적용	2027-01~12	교육청 플랫폼 연계가 표준이 된다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응시 제한 1년→10년	고지 예정	평가 설계 자체가 바뀐다

에듀테크에 무엇이 열리나

교사가 만든 교과서와 교육부 공통모듈(통합인증·나이스 연계·수업 자동설계)이 결합하면, 민간의 자리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입니다. AI가 초안을 만들고 교사가 확정하는 구조가 제도로 굳어지면, 검토·확정 UI와 기록이 경쟁력이 됩니다.

무엇이 걸리나

공통모듈은 2027년 충북에서 1년간 검증됩니다. 수업 자동설계가 어떤 모델로 초안을 만드는지, 품질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교사 준비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지표가 아직 없습니다. 이 지표를 가진 사업자가 표준을 선점합니다.

제도 정부가 정한 두 숫자, 50MW와 16과목 — 인프라와 교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Ⅷ. 전략 — 이번 주의 세 회의와 한 개의 숫자

Three meetings, one number, four audiences

이번 주에 확인할 것 — 세 개의 회의와 한 개의 숫자

11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한국 경제의 방향을 가르는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26일 한국은행 금통위와 수정 경제전망·점도표, 27일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 그리고 12월 1일 11월 월간 수출입 동향입니다. 금리 결정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으므로, 시장이 실제로 반응할 지점은 "앞으로 얼마나 더"에 대한 점도표의 중간값입니다. 3.50%가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긴축이 이어진다는 뜻이고, 3.25%에 머물면 인상 사이클의 종료로 읽힙니다.

일정	무엇을 보나	기준선	판단
11-26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점도표 중간값	3.00% → 3.25%	3.50% 제시면 긴축 지속
11-26 수정 경제전망	2026·2027 성장률·물가	3.3% / 2.9%	3%대 후반 상향 여부
12-01 11월 수출	반도체 단가·일평균 수출	10월 초순 +111.9%	단가 꺾이면 실물 둔화 신호
12월 연준 회의	금리·점도표	인상 경계	달러·환율 경로 결정
2027-01 충북 공통모듈	수업 자동설계 검증 착수	2027-01~12	에듀테크 표준의 실험대

네 집단의 이번 주 할 일

창업가에게 이 국면은 "자금이 없다"가 아니라 "자금이 좁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의료·소재·AI처럼 계산이 되는 섹터로 돈이 몰리므로, 초기 기업은 매출이나 실증 계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라운드를 얹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는 초급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일이 남습니다. AI가 대신할 수 있는 문서·정형 검사는 넘기고, 판단과 검증을 초급자에게 남기는 직무 설계가 채용을 지킵니다. 교육 사업자에게는 2027년 3월(데이터센터)과 2028년 3월(AI 교과서)이라는 두 개의 시행일이 로드맵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자격보다 "AI가 낸 초안을 검증한 기록"이 차별점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 리포트의 한계

11월 26일 금통위 결과와 12월 1일 수출은 이 글이 발행된 뒤에 나옵니다. 이 리포트는 그 두 이벤트를 전망이 아니라 "확인 지점"으로 제시합니다. 인용한 전망치는 발표 기관과 시점을 명시했고, 본문의 해석은 콘데리 AI산업전략연구실의 판단임을 밝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금리 3.25%, 성장 3.9%, 청년 −19.6만 — 세 숫자가 만나는 지점은 하나다. 성장의 구성이 사람을 덜 쓰고 있다**

English Summary

For global readers and archive

English Summary

Korea enters the final week of November with three numbers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ird-quarter GDP grew 1.0 percent quarter on quarter, more than triple the Bank of Korea's August forecast of 0.3 percent, driven by semiconductor exports and capital spending. October consumer prices rose 2.8 percent year on year, with core inflation also at 2.8 percent, above the central bank's 2 percent target. The policy rate stands at 3.00 percent after hikes in July and August and a hold in October; the market expects 3.25 percent at the November 26 meeting, with Kiwoom Securities seeing a further move to 3.50 percent in February 2027.

The labour market runs the other way

Youth employment, aged 15 to 29, fell 196,000 in October, a 48th consecutive monthly decline and the longest streak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youth employment rate slipped to 42.9 percent, down 1.7 percentage points, its 30th month of decline. Total employment rose 139,000, almost entirely from workers aged 60 and over, while the 20s lost 203,000. Among young wage earners, 46.0 percent hold non-regular contracts, the highest since records began in 2003, and 27.4 percent work part time. The Bank of Korea attributes this to a dual labour market: as primary-sector hiring freezes, young workers enter secondary jobs rather than wait, and the path back narrows.

Capital and institutions

Venture funding reached a record KRW 12.62 trillion in the first three quarters, with KRW 66.6 billion disclosed across eight startups in the week to November 20; 80.7 percent of that went to a medical robotics company and a glass-substrate materials maker. The science ministry proposed rules exempting non-metropolitan AI data centres up to 50 megawatts from grid impact assessment, effective March 2027, and the education ministry is developing 16 AI textbooks written by 99 practising teachers for classroom use in March 2028. The KOSPI fell 7.95 percent on the week to 4,869.96 and the won closed at 1,336.2 per dollar.

Summary **Growth and rates are rising because the economy is strong; youth hiring is falling because the mix of that growth no longer needs beginners**